

원용택(대한사료영업부 차장)

활율이 인상됨에 따라 75% 이상 수입원료에 의존하는 사료가격은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산 소맥피, 탈지강, 박류 단미사료가 사료생산의 증가로 인하여 품귀 현상을 보여 10%인상되어 사료가격 인상에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수송비, 인건비도 전부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10~12%정도 인상해야만 사료의 질을 유지 및 개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군소양계나 대규모 양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500~1,000수 규모의 전업양계가에게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양계 규모가 대부분 500~1,000수 사이에 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사료업계나 양계업계가 체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의 경영방식을 탈피하여, 합리적인 경영으로 경제성을 높이고 사양 기술을 발달시켜야 하며 사료 공장은 공장대로 사료 품질의 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황인옥(서울시 축정계장)

타격이 아주 심각할 것이다. 서울 시로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양계산물 소비증대 운동을 더욱 더 활발히 진행시켜서 조금이라도 생산자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이럴때일수록 생산자 단체는 단합하여 해결책을 논의해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계조(천호부화장 대표)

사료공장이나 양계장이나 마찬가지로 생산가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하면 수지개선의 요소가 아직도 많다고 본다. 사료공장은 무조건 올리기 전에 자체 경영의 합리화로 생산비를 절

감시켜 가격인상을 최소로 해야하며 양계인들도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어려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하중조(게츠브로스 축산부장)

전업양계가는 어떻게 이겨나가든지 이번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부업 양계가의 대부분은 도산할 우려가 있다.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양계가가 죽으면 결국 사료업계에도 불황이 올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럴때 사료협회를 주축으로 하여 국내 사료업계에서는 양계가를 꼭 살려야 한다는 희생적인 각오하에 국내 사료 자원 발굴은 물론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료라도 값싸고 더 질 좋은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하며 생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단위가 큰 사료 공장 일수록 여유가 많아 살테면 사고 사기 싫으면 그만 두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지 말고 양계인이 언제든지 고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용을 지켜주기 바란다. 외국계 수입에도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여 질병 만연을 최소로 억제하여 질병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대책으로는 시장에서의 생닭 판매를 없애 유통경로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사이비 양계인이 도태되어 유통경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일 것이다.

김정호(영화농장)

나는 부화와 부로일러업을 겸하고 있어 일반 양계장보다는 타격이 덜 하리라고 판단하여 계속 밀고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양계산물 비수요기에 접어들면서 부로일러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이때 사료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질이라도 개선하여 믿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 각계의 반향 □

최세원(부천군 괴암리 산란 800수 부로일러 3,000수)

사료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료회사는 최소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하여 주기바란다. 지금 쓰고 있는 사료는 환율이 인상되기 전에도 올랐는데 또 오른다면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양계의 의욕이 아주 없어져 버리고 만다. 경기회복시까지 참고 견디어보겠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이다.

김정인(경북축산 영업부)

사료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양계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료회사가 맹목적인 적자를 감수한다면 이는 양자공멸(兩者共滅)이라는 더 큰 사태를 불러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료협회의 주장대로 10%인상은 현실적으로 볼 때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합사료중 외국수입품의 원료비중이 70%정도 차지한다고 볼때 이번 환율인상이 13%이므로 $13\% \times 0.7 = 9.1\%$, 즉 9%정도의 인상이 현실 유지를 하는 선일 것이다. 여기서 사료회사의 기술진의 보강과 연구로서 2%정도는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따라서 현실적인 적정 인상율은 7%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사료업자는 양계업계에 주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양계업계를 질식시키는 길을 피해야 할 것이다. 사료업계는 우선적으로 가격인상이라는 편법으로 숨을 돌리겠지만 양계업자들은 생산의욕이 많이 저하되어 전반적인 양계의 불황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즉 가을 육추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금년부터 명년까지 사료업계 부화업계에 연쇄적인 충격을 주지않을까 우려된다.

대부분의 사료공장은 그나마 있던 기술진들이 판매경쟁의 치열로 말미암아 판매부로 전향하여 품질관리에 소홀해진 감이 많았다. 사료공장은 이점을 고려하여 값싸고 좋은 사료를 만들도록 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하여 적정이윤선을 유지

하되 맹목적인 가격 인상은 하지 않아야 하며 중간 이윤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 직매제도등을 시급히 고려하여 양계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행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내 원료사료의 개발과 증산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제주, 호남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유채(油菜)등의 증산을 위해 노력하여 외화도 절약하고 사료생산도 안정시키는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력 발휘가 요망된다.

공상현(수원시 연두양계장)

나는 현재 올린 가격으로 사료를 쓰고 있는데 사료업자측의 얘기로는 20일 경에 또 올린다고 한다. 올리면서 하는 말이 불실한 양계인이 도태되어 양계가 정화될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우리같은 소규모 전업 양계인이 죽고 마는 사태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 말이다. 사료공장은 오로지 가격인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올리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올리기 전에 자체검토를 충분히 하여 최소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진데 환율 인상 이유 하나만으로 10~12% 올리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인성이(경기도용인군신갈리 부로일러900수)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우선 채란계에 영향을 미쳐 노계, 폐계가 시장에 대량 출하되어 부로일러에는 이중타격이 올 것이다. 만일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로일러업자들은 우선 유통경로를 단축내지 개선하여 중간마진의 폭을 대폭 줄여서 생산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영한(양주군 구리면 단지 양계인)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고 난후에 자가배합을 하고 있다. 40원에 구입하던 산란계 사료를 자가배합하니 34원 정도 든다.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양계업자들에게는 우선 자가배합을 권하겠지만 소규모 양계인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